

기독교회를 위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시사점 분석-실천 윤리와 공의의 실현 중심으로

이면재*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An Analysis of the Ethical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Christian Church: Focusing on Practical Ethics and the Realization of Justice

MyounJae Lee*
Professor, Division of Computer Engineer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와 사역 양극화 등 사회·신학적 위기를 진단하고, 성경적 공의 실현을 위한 윤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 2022~2026년간의 학술 데이터와 교회 현장의 실증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현상 진단-쟁점 도출-기독교적 제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편향성을 극복하는 '디지털 환대'와 생명 윤리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MHC)' 체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기술 설계 단계부터 신앙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알고레틱스(Algoethics)' 모델과 기술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는 '디지털 희년' 정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한국 교회의 청지기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목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윤리 지표를 체계화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신학, 기독교, 디지털 사역

Abstract This study diagnoses socio-theological crises, such as the digital divide and pastoral polarization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explores ethical countermeasures to realize biblical justice.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academic data and empirical evidence from church ministry fields between 2022 and 2026 were collected, and a three-stage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environmental diagnosis, issue identification, and Christian suggestion' was applied. Through this, the study examines 'Digital Hospitality' to overcome algorithmic bias and 'Meaningful Human Control (MHC)' systems to protect bioethics. Furthermore, it proposes the 'Algoethics' model, which internalizes religious values from the technological design stage, and the spirit of 'Digital Jubilee,' which aims for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technological benefits.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ce in re-establishing the stewardship mission of the Korean church in the AI era and systematizing practical ethical indicators applicable to the pastoral field.

Key Words : AI, AI Ethics, Christian Ethics, Theology, Christianity, Digital Ministr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6년 현재,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류 문명의 총체적 질서를 재규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을 형성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AI4S(AI for Science)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산업 구조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낙관론의 이면에는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이 초래하는 기술적 폭력,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 뉴스의 확산, 그리고 고숙련 업무 대체에 따른 부의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3,4,5].

기독교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기술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른 일반 사회의 소외 현상[3]은 신앙 공동체 내부로까지 전이되어, 기술 자본을 점유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소외 공동체 간의 사역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성경이 강조하는 공동체적 일치와 공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4,5]. 특히 효율성과 수익성에 매몰된 알고리즘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거나 인간의 노동 가치를 단순한 데이터 공급원으로 전락시키는 현상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악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6,7]. 따라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확산이 가져오는 다층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청지기적 도구로 선용하기 위한 실천적 윤리 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시급한 시대적 과제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과제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에 따른 윤리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기독교적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실천 양식을 규정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이 초래하는 사회적 차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현대'의 개념을 도출한다. 둘째, 자율 살상 무기와 유전자 편집 등 생명 윤리 영역에서의 기술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MHC)' 체계를 고찰한다[8]. 셋째,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보호와 노동

가치 보존을 위한 청지기적 책임 의식을 제안한다. 최종적으로, 기술 설계 단계부터 공휴과 정의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알고레틱스(Algoethics)'와 기술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지향하는 '디지털 희년'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9,10],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목회 현장에 실천적인 윤리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11].

1.3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이 기독교적 공의와 실천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채택한다.

첫째, 자료 수집의 객관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범위를 생성형 AI 기술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RISS, DBpia, Google Scholar 등 국내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신학, 기독교 사회 윤리 관련 선행 연구 및 학술 논문을 수집한다. 또한, 주요 교단(예장통합 등)에서 발표한 공식 선언문과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다룬 실증적 뉴스 데이터를 분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 진단 - 쟁점 도출 - 실천적 제언'의 흐름을 따르는 '3단계 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기술 환경 분석): 생성형 인공지능 및 AI4S(AI for Science) 기술이 일반 사회 및 교회 현장에 도입된 실태와 이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진단한다.

제2단계 (사회·윤리적 쟁점 도출): 기술 확산 과정에서 노정된 알고리즘의 편향성, 생명 윤리 위협, 저작권 분쟁, 노동 소외 등 성경적 공의(Justice)와 직결된 핵심 과제들을 도출한다.

제3단계 (기독교적 대안 제언): 도출된 쟁점을 '디지털 희년'과 '알고레틱스(Algoethics)' 등의 신학적 가치로 재해석하여, 목회 현장과 사회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적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인식론적 전환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으로 규정한다. 이는 기존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넘어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목회 현장 변화와 AI4S 시대의 사회 구조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통전적(Holistic)이고 실천적인 신학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을 진단하고 기독교적 실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총 5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본 연구가 지향하는 공의의 실천적 목적과 3단계 분석틀을 기술한다. 2장에서는 인공지능의 확산과 사회적 도전을 분석한다. 이후 3장에서는 사회적 공의를 위한 윤리적 성찰을 작성하고, 제4장에서는 영역별 실천 윤리 및 신학적 제언을 통해 기술 선용을 위한 5대 핵심 대책을 제시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한다.

2. 인공지능의 확산과 사회적 도전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인식론적·윤리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중화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재편하며 공동체의 신뢰와 공의의 실천에 다층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다.

2.1 디지털 격차와 사역의 양극화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기능적 편의 제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매커니즘을 규정하는 핵심 동인으로 진화하였다. AI4S와 자율형 에이전트가 가져온 유례없는 생산성 향상은 찬사의 대상이나, 한편으로는 기술적 자본력의 유무에 따른 '디지털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계급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1,2].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교회 생태계 내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된다. 기술적 인프라와 자본을 갖춘 대형 교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자원이 부족한 소형 교회나 개척 교회는 기술 소외로 인해 사역의 질적 격차가 벌어지는 '사역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1]. 이는 성경이 강조하는 지체 간의 유기적 결합과 공평한 은혜의 나눔이라는 공의의 가치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

2.2 고용의 공동화와 부의 양극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프레이와 오스본(Frey & Osborne)[12]의 예측과 같이, 자동화에 의한 직업 대체는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전문직 영역까지 확

장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의 몰락과 부의 편중을 가속화하고 있다.

개혁주의 노동관에 따르면 노동은 창조주로부터 부여 받은 신성한 '문화 명령'이자 청지기적 소명이다[13]. 그러나 현재의 AI 가속화는 인간의 노동을 단순한 연산의 보조재나 데이터 소스로 전락시키며, 인간 존재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하는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

2.3 딥페이크와 공동체 신뢰의 위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확산은 사회적 진실(Truth)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조작된 영상과 음성은 정치적 왜곡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거짓 증언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14]. 공동체의 근간은 '정직'과 '신뢰'에 있으나, 기술에 의해 진위 판별이 어려워진 환경은 성도 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불신을 조장한다. 이는 성경이 경계하는 '거짓 증언'의 현대적 변용이며, 교회는 기술적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도입과 같은 제도적 방안 [16,17]뿐만 아니라, 진실을 분별하는 비판적 리터러시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윤리적 책무를 안게 되었다[15].

3. 사회적 공의를 위한 윤리적 성찰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회 의사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그 내부 기제의 불투명성과 데이터에 내재된 죄성(편향성)을 관리하는 것은 기독교 실천 윤리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

3.1 기술적 투명성과 기독교적 정직

현대 인공지능의 핵심인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딥러닝 체계는 결과 도출 과정을 인간이 논리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블랙박스(Black-box)' 현상을 내포하고 있다[18]. 최근 기술계에서는 이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LIME(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s),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및 심층 설명 학습(Deep Explanatory Learning) 기법은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결론에 도달한 근거를 시각화하여 제시한다[19].

성경은 “속이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

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 11:1)고 가르친다. 기독교 실천 윤리는 이러한 XAI 기술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기술의 효율성 뒤에 숨은 불투명성을 경계해야 한다. 결정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단순한 공학적 공정을 넘어,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지기적 정직의 실현과 직결된다[20].

3.2 데이터 편향성 극복을 위한 기술 동향과 디지털 환대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사회적 고정관념을 복제하고 증폭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성 인식 알고리즘(Fairness-aware Algorithms) 연구가 활발하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소수 집단의 비중을 높이는 '데이터 증강'이나 가중치 조정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18,19].

이러한 기술적 보완은 신학적으로 '디지털 환대'의 구체적 실천이 된다. 알고리즘에 의해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시스템이 그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설계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성경적 공의 실현이다[21]. 교회는 기술 설계가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예언자적 감시를 수행하며, 기술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윤리적 프로그래밍을 장려해야 한다[22].

3.3 알고레틱스(Algoethics)를 통한 공의의 내재화

2026년 현재, 기술 윤리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알고레틱스라는 실천적 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 바티칸이 주도한 '로마 인공지능 윤리 호소'[9]이후, IBM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개발 공정 전반에 윤리적 검토를 통합하는 '윤리적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19].

이는 기독교 윤리가 추구하는 '공의의 내재화'와 맥을 같이 한다. 알고리즘에 윤리를 결합한 이 개념은, 차가운 계산의 도구에 따뜻한 신앙적 가치를 담으라는 시대적 요청이다. 그리스도인 전문가는 효율성이라는 우상에 매몰되지 않고 기술이 인간 존엄성을 높이도록 운영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20,23].

4. 영역별 실천 윤리 및 신학적 제언

본 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선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5대 영역으로 나누어 제언한다. 이는 기술의 효율성을 넘어 성경적 공의와 사랑을 기술 사회 속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지표이다.

4.1 공정성 및 투명성: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과 사회적 회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딥러닝의 특성상 의사결정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블랙박스' 문제를 안고 있다[24]. 이를 해결하기 위해 IBM의 'AI Fairness 360'과 같은 오픈소스 툴킷을 통해 편향성을 수정하는 표준 프레임워크가 체계화되고 있다[19]. 신학적으로 이러한 투명성 확보는 성경적 가치인 '정직'과 '청지기 의식'의 실현이다[20]. 결정 근거를 밝히는 것은 이용자를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윤리적 결단이며, 과거의 데이터 오류를 인정하는 '사회적 회개'의 과정이다.

4.2 약자 보호와 분배: 알고레틱스와 디지털 희년 실천

현재의 인공지능은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소버린 인공지능(Sovereign AI)'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1,2]. 또한, 바티칸은 설계 단계부터 포용성을 반영하는 알고레틱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8]. 기독교 윤리는 이를 디지털 희년(Digital Jubilee) 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10]. 희년 정신에 따라 기술 발전의 이윤이 독점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기술 접근성이 낮은 소외 계층의 '데이터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

4.3 생명 윤리 수호: 인간 통제 체계(MHC)와 생명 주권

자율 살상 무기(LAWS)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의 생명권을 알고리즘에 위임하려는 위험을 내포한다[25,26]. 국제 사회는 이에 대응하여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 체계와 유전자 편집 국제 등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8,27]. 성경은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기술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생명 존중의 기술 윤리를 세워야 한다.

4.4 창작 및 저작권 윤리: 대리 창조자로서의 책임 확립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저작권 주체의 모호성을 가져왔다. 이에 어도비(Adobe)의 '클린 데이터' 정책이나 옵트 아웃(Opt-out) 기술, C2PA 표준 등 기술적 방어 기제가 확산되고 있다[16,17,28]. 신학적으로 인간은 대리 창조자(Sub-creator)이다. 타인의 노력이 담긴 저작물을 무단으로 취하는 행위가 이웃 사랑에 반함을 지적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

4.5 노동 윤리: 인간 중심 설계(HCAI)과 인식의 원칙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알고리즘의 보조자로 전락시키는 '디지털 프롤레타리아트화'에 맞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전하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 설계가 강조되고 있다 [29]. 또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투명성과 인간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EU 인공지능 법 등 법적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24].

노동은 신성한 소명이며, 인공지능 도입은 인간을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 더 높은 차원의 청지기적 직무에 집중하게 할 기회이다. 기술 발전이 주는 생산성 향상은 노동 착취가 아닌 진정한 인식의 기회로 전환되어야 한다[13,30]. 기술의 혜택을 공동체 전체가 향유하며 노동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 이 시대 신학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5.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5.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제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과 윤리적 쟁점을 기독교 공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재편하는 핵심적 '사회적 환경'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첫째,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해소를 위한 XAI 도입과 투명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 독점 방지와 소외 계층 환대를 위한 '알고리즘' 및 '디지털 희년'의 가치를 도출하였다. 셋째, 생명 주권 수호를 위한 인간 통제 체계와 노동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인간 중심 설계 및 인식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 윤리는 기술의 논리에 복음적 긍휼을 내재화하는 청지기적 사명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교회가 AI라는 거대 변화 속에서 수행해야 할 '예언자적 파수꾼'의 역할을 제시한다. 교회는 기술의 효율성에 매몰된 인간 도구화에 저항하며, 기술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교회 차원을 넘어 국내정서에 맞는 교단적 차원의 'AI 윤리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과 성도들의 신앙적 분별력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제언한다.

5.3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제시된 '알고리즘'과 '디지털 희년' 모델을 목회 현장 및 기독교 기업에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소버린 AI 등 고도화된 자율 시스템이 공동체의 사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가상 목회 환경에서의 성례전적 가치 보존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교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NIA, "12 Major AI and Digital Trends for 2026," Special Report on Digital Strategy, 2025.
- [2] Global ICT Portal, "AI Market Outlook and Technological Convergence," 2025; Hwang, H. J., "Strategies for Digital Sovereignty and Industrial Change," IT & Future Strategy, No. 6, NIA, 2023.
- [3] KISDI, "Human Alienation in the AI Era: Diagnosis of Digital Inequality," KISDI Premium Report, 24-05, 2024.
- [4] Kim, J. K.,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ristian Spirituality: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Directions," 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2025.
- [5] Shin, J. H., "Risks and the Possibility of 'Turning' in the Age of Grand Technolog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24.
- [6] Yoo, K. 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ristian Eth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eological Anthropology," Youngsan Theological Journal, Vol. 48, pp. 87-116, 2019.
- [7] Lee, C. 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hristian Ethical Responses," Christian Social Ethics, No. 45, pp. 89-115, 2022.
- [8] Han, H. W., "Study on the Legal and Moral Issues About Killer Robots," Chung-Ang Law Review, Vol. 20, No. 1, pp. 325-365, 2015.
- [9] Pontifical Academy for Life, Rome Call for AI Ethics, Vatican City: Editrice Vaticana, 2024.
- [10] Lee, K. J., "The Spirit of Jubilee in the Digital Age: Redistribution of Technological Capital," Christian Ethics, Vol. 14, No. 2, pp. 88-112, 2025.
- [11] Lee, J. W., "The Church's Path to Preserving Humanity," Koramdeo.com, 2025.
- [12] Frey, C. B. and Osborne, M. A., "The Future of

Employment," Oxford Martin Programme, Vol. 1, No. 1. pp. 1-72, 2026.

- [13] Volf, M., Work in the Spirit: A Theology of Work for a Digital Age,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25.
- [14] Sharma, M. et al., "Towards Understanding Sycophancy in Language Models," Proceedings of the ICLR, 2024.
- [15] Niebuhr, 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in the Age of Algorithms, New York: Scribner, 2025.
- [16] CSI, "Content Credentials: Strengthening Multimedia Integrity in the Generative AI Era," 2025.
- [17] Adobe, "Firefly: Responsible AI and Content Authenticity Initiative," 2025.
- [18] Mehrabi, N. et al., "A Survey on Bias and Fairness in Machine Learning," ACM Computing Surveys, Vol. 54, No. 6, pp. 1-35, 2021.
- [19] IBM Research, "AI Fairness 360 (AIF360): An Extensible Toolkit for Detecting and Mitigating Algorithmic Bias," IBM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69, No. 2, pp. 110-125, 2025.
- [20] Shin, G. 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hristian Mission of Stewardship," Theological Bulletin, Vol. 38, No. 2, pp. 55-78, 2023.
- [21] Kim, U. H.,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Morality of AI," Center for Studies of Christian Thoughts and Culture, 2024.
- [22] Floridi, L. and Sanders, J. W., "The Ethics of AI in the Workplace," Oxford University Press Research Series, 2024.
- [23] Matthew, J. G., Encount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Eugene: Pick Wick Publications, 2023.
- [24]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for High-risk AI Systems," EU Policy Series, 2026.
- [25] Human Rights Watch (HRW), "Heeding the Call: Moral and Legal Imperatives to Ban Killer Robots," 2018.
- [26] Park, S. and Bae, J., "An Ethical Framework for AI-driven Gene Editing," Frontiers in Genetics, Vol. 16, No. 1, pp. 45-58, 2024.
- [27] Garcia, M., "Global Governance of AI-driven Gene Editing," Journal of Bioethical Inquiry, Vol. 22, No. 1, pp. 15-32, 2026.
- [28] WIPO, "Generative AI: Copyright and the Opt-out Mechanism Standard," 2025.
- [29] Shneiderman, B., Human-Centered A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 [30] Kim, B. J., "On Humanity in the Era of Post-humanism," Worldview Newsletter, The Center for Christian Worldview Studies, 2019.

이 면 재(MyounJae Lee)

[종신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 2020년 8월 :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관심분야>

사물인터넷, 게임, MPEG, 가독 IT